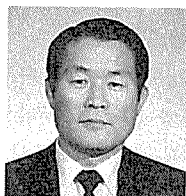


간의 천적은 술



설 성수
건협 전북지부 차장

하늘은 만물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술을 빚어 냈다고 당대의 시인 杜甫는 말했고 그리스의 유리피테스도 술이 없는 곳에 사랑이 있을 수 없다고 술에 대하여 예찬했다. 반면 석가모니는 술은 사람의 정신을 잃게 하는 독약이라고 했고 세익스피어도 술은 사람을 방약무인케 만드는 악마라고도 했다.

그러나 한잔의 술로, 쌓였던 긴장을 풀고 또 한잔을 권하면서 서로의 가슴을 털어 놓고 한 형제처럼 다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인가.

어쨌든 술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 중 하나이다. 「도깨비 국물」이라 하여 악마가 만든 음식이라고도 하고 썩은 음식이라고도 하며 마시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의 범주가 결정되리라고 생각된다. 술로 인한 여러가지의 해독이

알려지고 있음에도 술을 한번 배워 놓으면 절제하기가 힘들다. 적당히 마시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되는 것이 보통이다. 술이 술을 마신다는 말처럼 많이 또는 자주 마시면 중독자가 된다.

럿셀은, 음주는 일시적인 자살이라고 했고 요즘 미국 매스컴들은 알콜중독자에 대한 현황과 연구성과를 엮어 음주의 피해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한다.

그러나 핑계없이 술 못마시는 것이 우리 한국인의 음주 문화의 특색 가운데 하나다. 기분 좋다고 마시고 나쁘다고 마시고 이사 핑계, 새옷 핑계, 비오니까 한잔, 차를 놓쳤으니 한잔, 공휴일이니까 한잔, 승진 핑계, 아들 딸 낳다고 한잔... 그저 적당한 이유를 들어 술 마실 구실을 궁리한다.

송강 정철은 장진 주사에서 술은 좋

다고 했고 그의 계주문에는 술마시는 4가지의 사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마음에 불평이 있어서 마시고 둘째는 감흥에 의해서 마시고 셋째는 손님을 접대하느라 마시고 넷째는 남이 권하는 것을 사양치 못해서 마신다고 했다. 그러나 술에 대한是非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중국의 우왕은 술을 마셔 보고 술로 인하여 나라를 망친다고 예언했고 그의 후손들이 술로 인하여 나라를 망하게 하고 말았다. 공자도 술은 좋으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다. 술은 썩은 음식으로 만들어져서 악취를 풍기고 지혜로움을 상실케한다.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술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이성의 판단도 흐려지고

자기 주관이나 신념 체계도 형편 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된다. 냄새나고 썩은 더러운 병을 앓을 사람, 줏대 없이 살면서 자기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주태백이가 많다.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술을 음미하는게 아니라 과음 과속으로 치달고 있다. 술은 이길만큼 마시면 茶가 되지만 많이 마시면 독이 된다.

요사이 텔레비전이나 신문, 잡지, 라디오 등 매체에서 술의 광고가 빠지는 날이 거의 없다. 온 국민을 주정뱅이로 만드는데 거들어야 하는가 말이다. 성인군자도 술이 들어가면 혀가 나오게 되고 혀가 나오면 말을 실수하고 말을 실수하면 체통을 잃기 십상이다. ㉔

건협, 검진자 불편 상담전화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전화로 들려 주십시오.

◎ 이용전화 : 080-024-8572(수신자부담)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97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자 불편 상담소 앞
(157-016)